



## 유럽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sup>1)</sup>

채원영 연구원

2017년 6월 EIOPA가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Solvency II가 원활히 도입되고 유럽 보험부문의 자본이 적절하게 축적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럽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EIOPA 회장 Gabriel Bernardino는 최근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보험산업의 적절한 자본 확충은 긍정적이나 정치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재무건전성의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

■ 2017년 6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Solvency II 적용은 저금리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수행되었으며 유럽 보험부문의 자본은 적절하게 축적된 것으로 평가

- Solvency II는 5차례의 계량영향평가(QIS: Quantative Impact Studies)와 장기보증영향평가(LTGA: Long-Term Guarantee Assessment)를 거쳐 16년간의 경과조치(transitional measure)<sup>2)</sup>라는 보완적인 제도를 갖추고 2016년 1월 시행되었음<sup>3)</sup>
  - 본 금융안정보고서의 지급여력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비율은 장기보증 및 주식위험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반영한 수치임
- 2016년 12월 현재 대부분의 유럽 보험회사 SCR 비율이 100% 이상을 기록하여 자본확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4/4분기 기준 전체 보험회사 SCR 비율의 중앙값은 209%였으며 생명보험회사 217%, 손해보험회사 207%, 생·손보 겸영회사 210%를 기록함
- 유럽 대형 보험그룹은 2016년 후순위채권 및 하이브리드채권 발행, 해외사업 매각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으며 내부모형 구축을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시키는 등 Solvency II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sup>4)</sup>

1) EIOPA(2017. 6), "EIOPA Financial Stability Report June 2017", <https://eiopa.europa.eu>

2) 경과조치와 관련한 내용은 황인창·조재린(2016. 7),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CEO Report』, 2016-4, 보험연구원 참조

3) 보험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2017. 2), 『해외 주요국의 지급여력제도 현황』

- AXA는 2016년 3월 2047년 만기 15억 유로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6년 9월에도 8.5억 유로의 영구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였음
- Prudential은 2016년 6월 10억 달러, 9월 7.25억 달러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였음
- Aegon은 2016년 상반기 영국 연금 사업 매각을 통해 금리리스크를 낮추고 자기자본을 확충하였으며 Allianz는 2016년 12월 한국 생명보험사업을 매각하였음
- 한편 AXA, Aviva, Allianz, Aegon 등은 부분 내부모형을 구축하였음

#### ■ 그러나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수익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의 중간값은 2014년 11%에서 2015년 9.7%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도 9.1%로 낮아졌음
  -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의 중간값은 약 1%를 기록하였음
  - 기존 고정금리 장기저축상품과 같이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높은 회사에서 ROA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combined ratio)의 경우 중간값이 100% 미만이지만 이는 최근의 낮은 언더라이팅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 ■ 또한 정치리스크, 테러리스크, 사이버리스크 등은 유럽 보험산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 독일 총선(2017년 9월 24일), 이탈리아 총선(늦어도 2018년 5월 이전)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Brexit의 노선 협상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또한 테러 공격은 최근 그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산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사이버 갈취(virtual extortions) 등 사이버 공격도 유럽 보험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 EIOPA 회장 Gabriel Bernardino는 보험산업의 자본이 적절하게 확충된 점과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긍정적이나 저금리 환경에서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정치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향후 EIOPA는 사전에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도록 Solvency II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힘 [kiri](#)

4)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17. 4. 18), “欧州大手保険グループの 2016 年末SCR 比率の状況について—ソルベンシー II に基づく数値結果報告—”